



장희옥 박사의 세계각국 수행처 탐방기

“세계의 유명한 수행처일수록 교리를 중시한다. 또한 스승과 제자가 개별적으로 만나 수행 진척사항을 점검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일본, 동남아, 유럽 등 세계 각지의 다양한 수행법을 체험한 미래학불교학회 장희옥(53) 회장의 결론이다.

장희옥은 최근 미래학불교학회 학술세미나에서 ‘불교 수행의 세계적 현황과 그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한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많은 선지식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수행과 교학의 병행과 함께 늘 점검해 줄 수 있는 지도방식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람처 가운데 마음을 위주로 관찰하는 미얀마의 세우민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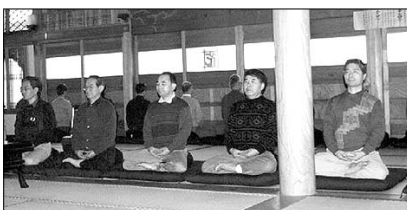
프랑스 플럼빌리지의 행선 장면. 맨 왼쪽이 틱낫한 스님.

“교리없는 수행은 위험 수행 빠진 교리는 공허”

일본 도쿄대에서 화엄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십여년 이상 동국대 등 대학 강단에 서 연구와 교육에 전념했던 장희옥 박사. 장 박사는 지난해 3월 그동안 익힌 불교학을 실감으로 확인하겠다는 절박한 발심으로 교수라는 ‘보장된 직업’을 포기하고 구도행에 나섰다. 이 논문은 그동안의 견해와 수행담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지난 1년간 각국의 수행선

터와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던 구벽여행을 시작한 것은 각기 다른 전통에서 계승되어 온 수행법들을 체험해 봄으로써 자신의 눈도 새로 뜨고 한국불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도 일조하고 싶었다는 게 그녀의 취지였다.

●**일, 독참제도 눈길**=이 논문에 따르면 장 박사가 처음 방문한 곳은 일본 인제종 황학사(皇學寺)의 참선도량인 고고쿠지(高岡寺)였다. 이 절은 중국 송나라 때 선 수행과 생활 모습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고 있었으며, 지금도 양식이 떨어지면 스님들이 탁발을 나갈 정도로 청빈한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여름, 겨울 안거기간에는 하루 15시간 이상 좌선할 정도로 열광적인 수행을 하고 있다. 입선 중에는 조금 졸기만 해도 딱딱 내리치는 장군죽비, 겨울에도 문을 모두 열어놓고 좌선하는 모습, 노동 즉 율력을 중요시 하는 전통에서 일본 선불교가 아직도 필립 살아있음을 뼈저리게 체험할 수 있었다고 장 박사는 소개했다. 특히 그녀는 이곳의 가장 큰 장점으로 제자가 스승에게 매



일본 교토 좌선회의 정진모습.

일 1~5회씩 자신의 견차를 보이고 점검을 받는 독참(獨參)제도를 꼽았다.

장 박사는 미야모토 다이호오 방장스님과 대화의 통해 ‘화두를 하나만 들지 않고 단계별로 화두를 바꾸어가며 드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화두를 단계별로 바꾼다는 것은 화두 하나를 온전히 깨쳤는지 점검하는 방법’에 불과하다. 화두 하나를 온전히 깨쳤다면 1700개 화두를 다 들이대어도 그 자리에서 다 풀릴 것이다. 화두를 바꾼다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 박사는 “하루 15시간씩의 좌선을 수행해 본 결과 방장 스님의 말처럼 ‘좋은 스승이 있으면 언제라도 좋은 제자가 배출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명성 높은 곳일수록 교리 중시 제자들의 수행 상황 정기 점검

●**목인·오후불식 체험**=일본의 간화선을 체험한 장 박사는 다시 미얀마 양곤의 세우민 센터를 방문했다. 새벽 3시 30분부터 오후 10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몸과 느낌, 마음, 법 등 사념처 가운데 마음을 위주로 관찰하는 세우민 센터의 위빠사나 수행은 좌선과 행선을 중심으로 문을 모두 열어놓고 좌선하는 모습, 노동 즉 율력을 중요시 하는 전통에서 일본 선불교가 아직도 필립 살아있음을 뼈저리게 체험할 수 있었다고 장 박사는 소개했다. 특히 그녀는 이곳의 가장 큰 장점으로 제자가 스승에게 매

마음자세로 수행하고 있다.” 하고 당시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장 박사는 우 페자나 스님의 가르침처럼 위빠사나의 핵심은 ‘사피(see)’, 즉 알아차림에 있으며, 남방불교의 수행도량에서도 철저한 지도점검과 경건 공부가 필수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장 박사는 베트남 출신의 틱낫한 스님이 프랑스 보르도 지방에 세운 플럼빌리지 명상수련센터도 찾았다. 이곳에서 그녀는 일주일 동안 율령명상, 진리토론, 대지와 접하기, 게으름의 날, 틱낫한 스님의 법문 등으로 이뤄지는 수행코스에 동참했다. 장 박사는 틱낫한 스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플럼빌리지의 수행프로그램은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호흡과 걷기 명상을 통해 알아차리고, 모든 존재가 그를처럼 얽혀 있다는 자각 아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존재 그들처럼 얽혀 있을 깨닫기**=장 박사는 구산 스님의 제자로 영국과 프랑스에서 한국 선을 지도하고 있는 마틴 베를러와 스티븐 베를러 부부, 송산 스님의 제자로 폴란드 등에서 선을 지도하고 있는 우봉 스님, 파리 김상사 주지 무이 스님 등을 면담하기도 했다. 이어 그녀는 중관학의 세계적 거장이자 선 수행자인 스위스 로잔대학의 자크 데 교수 만나 일주일간 함께 생활하며 그에게서 유럽불교의 희망을 발견하기도 했다.

1년여에 걸쳐 수행법 체험을 마친 장 박사는 “어느 수행이든 자신의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선택해 꾸준히 노력하면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녀는 “교리없는 수행은 위험하고 수행없는 교리는 공허하다”는 말로 선교상(禪敎雙修)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장 박사는 현재 남쪽 바닷가 외딴 섬 오목도에 조그마한 수행처를 마련해 내년을 향한 구도여행을 다시 시작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ews.com

각목 스님의 ‘놓치고 있는 수행의 핵심’에 대한 반론

간화선의 전통 수행법과 배치

본지 475호에 보도된 각목 스님의 <청정도론> 원역 기념 특강(5월 18일)과 관련, 이상호(법명 성조, 위덕대 불교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씨가 반론문을 보내왔다.

관행과 타성 속에 안주하려는 수행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애정 어린 비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강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간화선 자체에 대한 비판이거나 간화선적 입장에서 대안이라기보다는 전통적인 간화선 수행법과 배치되는 다른 수행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자칫 간화선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결론이 도출된다. 문제는 그 전체가 왜곡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첫째, 이 특강은 구체적인 과학적인 조사에 의한 근거없이, 막연히 깨달음을 향해 가는 수행자를 들어 수행방법을 도외시키고 돈오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단정하거나, 일자무식운동을 강조한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간화선 수행은 실참실수를 행하되, 반드시 스승의 점검을 받도록 강조한다. 또한 조사어록, 천 칠백여 공안집 등 선서를 나침반으로 삼아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불교의 모습들을 간명직절하게 체득하며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자무식운동이라고 평한다면 그야말로 단편적인 사고라고 아닐까 싶다.

둘째, 간화선 수행자가 깨달음의 당체를 간접하여 그것을 굳게 움켜쥐고 있다고 하나, 간화선에서는 어떠한 당체도 세우지 않기에 때로는 ‘무일물’을 말하고 ‘살불살조’를 말하며, 혹은 ‘백척간두 진일보’를 말하고, ‘항상 일로’를 말한다. 이것은 모든 열매임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것이다. 비록 진아, 분성, 자성, 주인공, 불성 등이라고 말하는 바가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되는 대상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붓다가 깨달은 바이고, 선지식들이 깨달은 바이며, 또한 자신이 깨달아야 할 바를 제시하기 위한 방편임과 동시에, 수행의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한 동인(動因)으로서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외도

라고 말한다면, 외도가 아닌 간화선 수행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셋째, 깨달음에 대한 갈애를 키우고 있다고 하나, 간화선에서는 의정을 가지라고 할 뻔, 갈애를 키우라고 하지 않는다. 설령, 수행 과정에서 그의정이 갈애가 된다는 치더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갈애를 버리고 의정을 깨뜨리기 위한 사전 준비이다.

넷째, 본래부처요, 본무번뇌라는 무사선에 빠져 있어 무명 속에서 탐진치에 휘둘리는 중생의 실상을 무시한다고 한다. 그러나 간화선에서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먼저 믿고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깨우침으로 가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 왜냐하면, 중생의 성품이 따로 있어 중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처의 성품이 따로 있어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법이다. 만일 중생이라고 못 박고 하는 수행은 평생 중생 노릇 밖에 못한다. 그래서 간화선에서는 본래 부처라는 대신심(大信心)을 갖도록 적극 권장하는 것이다. 또한 무명 속에서 탐진치에 휘둘리는 중생의 실상이 본래 부처이므로, 번뇌도 본래 번뇌가 아닌 것으로 본다.

다섯째, 간화선은 앉는데 집착하면서 깨달음과 적정하여 머물러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간화선은 예나 지금이나 일상선이며, 어느 곳에서나, 어디에서나, 그 무엇에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당체도 세우지 않기에 때로는 ‘무일물’을 말하고 ‘살불살조’를 말하며, 혹은 ‘백척간두 진일보’를 말하고, ‘항상 일로’를 말한다. 이것은 모든 열매임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것이다. 비록 진아, 분성, 자성, 주인공, 불성 등이라고 말하는 바가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되는 대상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붓다가 깨달은 바이고, 선지식들이 깨달은 바이며, 또한 자신이 깨달아야 할 바를 제시하기 위한 방편임과 동시에, 수행의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한 동인(動因)으로서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외도

위와 같이 정상적인 간화선 수행자가 지칭으로 삼는 전통적인 수행체계 내지 근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간화선(수행자)을 비판하고 이끌어낸 결론으로서 교학적인 점검 내지 위빠사나 수행법에 대한 관점은, 자칫 교학과 위빠사나 수행법의 확장을 위해 간화선을 비판하기 위한 비판으로 비춰질 수 있다. 간화선의 진정한 정체성 재확립에 한 발 다가서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

왜?

홈페이지 : 빈마음

그들이 진정 “불살생계(不殺生戒)”의 뜻을 아시는가?

아아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아바로키테 스바라 보디사트바

벽관돈오(壁觀頓悟) 달마선사(達磨禪師)님의 송(頌)과 해동초조(海東初祖) 원효성사(元曉聖師)님의 소(疏)를 따라 살펴보는 이야기

참으로 부끄럽사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수행인(修行人)임을 자처하는 저의 죄가 너무 크옵니다.

금과옥조(金科玉條)와도 같은 그 제1계 “불살생계(不殺生戒)”의 뜻 하나 제대로 올바르게 전파하지 못하는 이 무능력함. 여기 하 답답한 나머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살기는 마찬가지로인 이 오락약세(五濁惡世)에 ...

“관세음보살”은 정녕 어떻게 하여 스스로 오안(五眼)과 삼덕(三德), 즉 반야(般若)·해탈(解脫) 법신(法身)을 구족(具足)하여 제도 하셨던가. 해동초조(海東初祖) 원효성사(元曉聖師)님의 소(疏)와 벽관돈오(壁觀頓悟) 달마선사(達磨禪師)님의 송(頌)을 빌어다가 다시금 현실에 사무쳐 되새겨 보는 것으로 감히 무상참회의 서(序)로서 삼고자 합니다.

●보급처 : 불교서적 총판 범우당 02)994-4437
●문의처 : 043)851-1080, 팩스 043)853-8909

관절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신부, 흡연자에게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건디기 힘든 병입니다. 뼈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동(경남 신성)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졸락동시

(참선·부처님 오심법, 자동단전오심법, 자크라 여는법)

- 조그리고 앉아 배꼽아래 명치를 손으로 쥐어보면 불행과 병고 액난의 화병 덩어리가 잡히는데, 중단전 차크라가 막힌 것으로 이런 사람은 호흡수련이나, 염불, 독경, 주력, 위빠사나, 참선을 하면 할수록 가슴이 더 답답해지고 배꼽 주변에 딱딱한 덩어리가 생기고 배에 가스가 차고 허리나 손가락 마디가 까맣게 되며, 얼굴이 붉어지고 상기병이 되므로 수행의 제일 우선 과제는 중단전 차크라를 여는 것입니다.
- 중단전 차크라 지옥 덩어리를 간단한 수행의 비법으로 찰라에 뚫리게 하여 순간 수축화강이 되어져 머리에서 서늘한 바람이 나오고 손, 발, 배는 따뜻해지며 최상의 번디션을 유지하게 된다.
- 위빠사나, 참선 단전호흡 수행시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처지고 허리를 약간이라도 구부리고 또한 너무 반듯한 자세로 경직되면 교감신경의 작용으로 100% 상기병 걸리니 자세법, 이완법, 집중법을 철저히 배우고 수행해야 한다.
- 염불, 독경, 주력 수행의 들숨시에 배가 들어가고 어깨, 가슴이 들먹거리리는 역호흡으로 숨을 들어마시게 되면 불행의 늪인 병고 액난을 자초하는 것이니 자동단전호흡법을 배우시게 되면 몸과 마음과 호흡이 참으로 건강한 수행자가 되어집니다.
- △ 자동단전 호흡법의 기초에서부터 참선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테크닉과 심신건강의 비법을 배우게 됩니다.

☞ 수련일시 : 매주 목요일 낮 11:00~1:00, 저녁반: 오후 8시
☞ 수련비 : 입회비(만원), 수련비(월:3만원)
☞ 오시는 길 : 지하철 5, 7호선 군자전철역 4번 출구에서 천호방향으로 100M 이망스 가구 4층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 전화: 02)456-4994, http://cafe.daum.net/sorisan
“숨을 늑차게 잘 쉬는법” 책 5월 출간 예정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이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프레트형강판
슬라브, 시칠,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6-9294-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